보도시점 2026. 11. 11.(수) 배포즉시 배포 2026. 11. 11.(수)

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정상 진행중이며, 민간시장 백신공급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- 일부 기관의 백신 구매 어려움을 공공보건 영역 전반의 공급 차질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

질병관리청(청장 임승관)은 2026년 11월 11일(수) 서울신문, 「독감백신 못 구해 '발 동동'…한센복지협회마저 4연속 유찰」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.

□ 설명 내용

○ 2026~2027 절기는 WHO 권장 **백신주 전면 변경 및 B형 균주 표준품 공급 지연** 등 사유로 **백신 생산량이 전년 대비 일부 감소**하였으나, 예방접종은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, 공공보건 영역 전반이 백신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.

- 특히 국가예방접종의 경우 접종 개시 이후 1달이 경과하여 상당수 대상자가 접종을 완료한 현 시점에도 **위탁의료기관 총 23,051개소 중 19,057개소(82.7%)는 잔여 백신을 보유**하고 있으며, 예방접종을 정상적으로 진행 중입니다.

* 국가예방접종 대상 어르신 72.9%, 어린이 57.9%(1회 접종기준), 임신부 15.5만명이 접종('26.11.10 기준)을 마친 상황

○ 올해 정부 조달이 민간 접종 물량에 영향을 초래하지 않았으며, **매년 시행하는 통상적인 정부 조달을** 민간시장 수급 불안의 원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.

- 9.18일 보도설명자료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, **정부 조달 구매 추진으로 인해 민간 접종 물량에 변화를 초래하진 않았습니다.**

- 오히려 정부는 제조·수입사와 협력을 통해 백신 **105만 도즈**를 추가 생산하여, 이 중 **약 60만 도즈를** 민간시장에 공급되도록 유도하여 민간의 백신 수급 불안 해소에 기여하였으며,

- 예방접종 일정 조정 등으로 초기에 신속한 백신 확보가 필요했던 의원급 소아청소년과에는 정부 예비물량 **약 29만 도즈**를 현물로 지원하여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시행 중입니다.

○ 정부는 앞으로도 **백신 공급 상황**을 면밀히 **점검**하고 **안정적인 백신공급 및 국가예방접종사업 운영**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의료안전예방국 백신수급과	책임자	과 장	이승묵 (043-719-6810)
		담당자	사무관	홍미숙 (043-719-6812)
			연구원	이규영 (043-719-6818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